

〈네티아@매거진〉에 보내주신 독자 여러분의 깊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. 엽서와 이메일에 담긴 힘찬 격려와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여 더 나은 〈네티아@매거진〉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 채택되신 분께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.



「한글의 경제학」이라는 칼럼을 유익하게 보았습니다. 시립도서관에서 우연히 매거진을 접하게 되었는데, IT정보가 많은 것 같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.

경남 진주시 망경남동 이 한 영

「온라인 게임 속 역사왜곡어디까지왔나」라는 제목의 기사가 유익했습니다. 중국의 역사왜곡처럼 온라인 사물레이선 게임 상에서도 많은 역사왜곡 사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. 우수하고 인기 많은 우리게임이 많이 개발되길 바랍니다.

대구시 북구 노원3가 박 영 란

11·12월호 기사 중 「T V작막 남용 아대로는 안 된다」의 내용은 정말 공감 가는 부분이었습니다. TV쇼 프로그램 성격상 청소년이나 아이들이 더 많이 보는 것인 만큼 올바른 한글사용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.

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원 소 연

「네티아@매거진 팀」 여러분 감사합니다. 지난 한해 「네티아@매거진」 덕분에 한글의 우수성과 필요성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. 2005년에도 한글을 사랑하는 마음 변치않겠습니다.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와기사가많이 부탁드립니다.

부산시 동래구 안락동 손 영 태

2004년10월31일 만 36세의 나이로늦깎이 결혼을 했습니다. 나를 믿고 시집 온 어린신부에게 차가운 겨울떡 케이크와 함께 나의 따뜻한 마음과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.

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이 근 호

43세 아직 미혼인 제가 드디어 사랑하는 여인이 생겼습니다. 올유년 새해를 그녀와 함께 보내며 떡케이크를 나누고 싶습니다. 늦은 사랑이지만 떡케이크가 제게 행운을 가져다 줄것 같습니다.

인천시 연수구 연수동 강 호 우

이번 호에서는 「최초의 한글인터넷주소는 '쌀구사」라는 기사가 가장 재미있고 유익했습니다. 다음호에는 우리가 흔히 쓰는 외래어중 한글로 표시할 수 있는 것들을 골라예쁜 우리말을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.

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조 미 숙



편집실에서

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올 때는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다. 2005년 신년호를 만들면서 지금까지 만들었던 사보보다 힘들고 마음이 무거운 이유는 뭘까? 나도 모르게 커진 꿈(?) 때문이 아닐까? 그래서 더 없이 힘겹게 시작한 2005년 1·2월호가 더 값지다. 독자들에게 그 마음이 전해지길...
- 조 성 희 -

내 어릴 적 꿈은 미스코리아였다.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미의 여왕, 미스코리아. 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초라해지는 나의 몸(?)은 자연스럽게 그 꿈을 접게 만들어 버렸다. 내 못 이룬 꿈을 매거진에 담아 독자들에게 내민다. 네티아@매거진이 독자들 사이에서 공식 미인으로 거듭날 수 있으면 좋겠다.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은 미인 같은 매거진으로...
- 이 동 원 -



「문화산업 이끄는 새로운 힘 한글」이라는 기사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. 우리의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한글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모습이 무척 신선했습니다. 이런 시도가여러분야에서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.

울산시 중구 남외동 김 현 숙

P2 P등 정보의 공유나 활용이 확대되는 지금, 다양하고 일관 정보 활용과 규제방안에 대한논의나 칼럼을 다루어주었으면 합니다.

부산시 사상구 학

장동 박 정 현

케익보다 떡을 좋아하는 첫째공주의 생일을 맞아떡케익으로 축하의 마음과 아빠의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.

서울시 강동구 길

2동 박 병 준